

고령층 고용률 ↑ 재정 분 단순노무직...근속기간 5년來 최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발표

55~64세 15년 2.1개월 근속...1년 새 4.9개월 ↓

사직 이유,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 33%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자리 시장 어려움에도 고령층(55~79세) 고용률이 증가했지만 단순노무직 등 정부가 재정을 풀어 만든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55~64세 취업 유형별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2.1개월로 1년 전과 비교해 4.9개월 감소했다.

55~64세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내놨다.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476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49만4000명(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각각 856만3000명, 620만3000명으로 35만5000명(4.3%), 14만 명(2.3%) 늘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58.0%로 0.5%포인트(p) 상승했다.

이후 2017년(15년 3.5개월), 2018년(15년 4.9개월), 2019년(15년 5.7개월), 2020년(15년 7.0개월)까지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여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업자가 감소한 이후 올해 3월부터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영향으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도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진단했다. 근속 기간을 성별로 보면 지난 5월 기준 남자(18년 9.1개월)가 여자(11년 6.1개월)보다 7년 3.0개월 길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남자는 6.1개월, 여자는 3.7개월 감소했다.

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3세로 전년 대비 0.1세 감소했다. 일자리별로는 그만둔 이유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3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18.8%),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14.1%),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2.2%), 정년퇴직(7.5%),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됐다 생각해서(2.4%) 순으로 비중이 컸다.

이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18.8%),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14.1%),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2.2%), 정년퇴직(7.5%),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됐다 생각해서(2.4%) 순으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2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던 고령층(55~79세) 고용률이 반등한 점은 긍정적이다. 지난 5월 기준 고령층 고용률은 67.1%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다.

다. 반대로 실업률은 3.4%로 0.4%p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실업률이 3.8%까지 치솟으며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고령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업(17.6%), 농림어업(13.6%), 제조업(11.2%) 순이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25.6%), 서비스·판매종사자(22.3%),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2.3%) 순으로 비중이 컸다.

특히,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전년 대비 1.6%p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재정일자리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근속연수 감소와 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층 고용률은 정부 일자리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며 "농림어업, 건설 부문 일자리 확대도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고령층 가운데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68.1%(1005만9000명)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이다. 해당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계속 근로를 원하는 연령은 평균 73세까지다. 희망 월 평균 임금 수준은 150~200만원 미만(22.0%), 100~150만원(18.4%), 200~250만원 미만(17.8%) 순이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8.7%), 일하는 즐거움·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3.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가(77.4%)가 여자(59.6%)보다 일자리를 더 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가 고령화되는 추세다 보니 꾸준히 근로 희망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적 여유뿐 아니라 일에 대한 즐거움을 찾는 고령층도 많아서 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직 고령층(55~79세)의 절반 이상이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5월 기준 지난 1년간 연금 수령 비율은 48.4%(714만4000명)로 전년 대비 1.3%p 상승했다. 같은 기간 60~79세 연금 수령자 비율은 64.9%(690만3000명)로 0.3%p 뛰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4만원으로 1만원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 여자 각각 83만원, 43만원으로 1만원씩 늘었다.

서선욱 기자

신세계, 스타벅스 지분 17.5% 추가 인수...최대주주 등극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지분을 추가 인수하고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이마트는 27일 스타벅스커피 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지분 50% 중 17.5%를 추가 인수한다고 밝혔다. 취득 주식은 70만 주이며, 취득 금액은 4742억5350만원이다. 이로써 신세계그룹은 기존 지분 50%를 포함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지분 67.5%를 보유하게 된다.

70만주, 4742억에 취득...지분 67.5%로 최대주주

신세계그룹은 지난 1999년 이화여대 앞에 한국 스타벅스 1호점을 연 이후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왔다. 이후 한국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 끝에 추가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잔여 지분 32.5%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청(GIC)이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인수하기로 했다. 지분 인수에 따른 한국의 스타벅스 운영은 기존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해 온 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신세계는 밝혔다. 아울러 고객 서비스 및 파트너의 처우 등도 변화없이 유지·발전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그룹은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협력 관계도 긴밀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추가 지분 인수는 지난 22여년간 미국 스타벅스와 함께 쌓아온 성과와 신뢰의 결과이자 성장의 시발점"이라며 "미국 스타벅스, GIC와 함께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여 새로운 미래를 향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스타벅스는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신세계그룹과의 발전적인 협력을 꼽았다.

이슬비 기자

휴켐스,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



신진용 사장(왼쪽)과 박종태 노조위원장. 태광산업그룹의 화학계열사인 휴켐스가 1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휴켐스 신진용 사장과 박종태 노조

15년 연속 무분규로

위원장은 26일 여수공장에서 열린 임단협 조인식에서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합의를 서명했다. 휴켐스는 2012년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의 모범사례로 꼽혀온 회사다. 노사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회사 경영의 동반자로 인식해 노사 화합과 상생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주기적 소통채널을 통해 근무환경 및 안전, 복리후생 등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 및 공정관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스쿨존 등 속도위반 하면 보험료 더 낸다

최대 10% 할증.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 더 내야한다.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데 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은행 상생카드 출시 2주년 경품이벤트 당첨자 시상

1000만원 상당 경품 제공

광주은행은 26일 광주상생카드 출시 2주년 기념 이벤트 경품당첨자들에게 시상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부터 6월21일까지 광주상생카드 출시 2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해 705명을 선정했다. 1등 1명에게는 광주상생카드 100만원, 2등 4명에게는 광주상생카드 각 50만원, 3등 700명에게는 1만원 기프트콘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광주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의



지난 2년간 이용액은 1조3879억원에 달했다. 광주은행은 이용고객에게 감사사를 전하고 광주상생카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실시했다.

기동취재본부

오리온, 새콤·상큼한 '레몬초코파이' 여름 한정판 출시



오리온은 프리미엄 냉장 디저트 브랜드 초코파이하우스가 여름 한정판

'레몬초코파이'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레몬초코파이는 울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초코파이하우스 한정판 제품이다. 레몬 담은 비스킷을 레몬 빛 초콜릿으로 감싼 제품이다. 마시멜로 속에는 레몬 젤리로 만든 크림을 넣었다. 초코파이하우스 디저트 초코파이는 전국의 편의점 냉장 코너를 비롯해 도

곡분점, 암구점 등 초코파이하우스 매장과 이커머스 채널 '카카오TV 선물하기', '쿠팡',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등에서 판매 중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여름을 맞아 다양해지는 디저트 수요에 발맞춰 이색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새콤·상큼한 레몬초코파이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축은행 예금금리 연 2%대 회복

최근 수신금리 가파르게 올린 결과

저금리 기조에도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1년7개월 만에 다시 2%대를 회복했다. 저축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확대와 공모주 청약 환급금 유치 등에 대비해 최근 수신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결과로 풀이된다. 2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저축은행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연 2.01%를 기록했다. 2년 만기는 연 2.04%, 3년 만기는 연 2.07%다.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2%를 기록한 것은 2019년 12월 말(연 2.1%) 이후 약 1년7개월 만이다.

만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려는 저축은행들이 대출 실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신금리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공모주 청약 환급금 유치 경쟁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분석도 있다. 한인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이를 선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밖에도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저축은행들이 수신자금을 늘리며 예금금리를 올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이 최근 계속해서 2금융권을 향해 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라고 경고하고 나선 만큼 최근과 같은 수신 경쟁은 한 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구두 압박에도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존 60%에서 40%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잇따른 경고 메시지에 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저축은행 예금금리 연 2%대 회복

최근 수신금리 가파르게 올린 결과

배경을 한가지로 특정하기 어렵지

오유나 기자